
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
	배포일시	2017. 12. 19(화) 총 8매(본문3, 첨부 5)	
담당 부서 첨단항공과	담당자	• 과장 정용식, 사무관 박주환 • ☎ (044) 201-4225	
보 도 일 시		2017년 12월 19일(화) 11시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국토부, '18년 항공 MRO 사업 착수로 일자리 2만개 창출

- 항공 MRO 사업자로 KAI 선정, 지역경제 및 국가균형발전 기여 -

- 국토교통부는 12.18일 개최된 「항공정비(MRO) 사업계획 평가위원회*」 심의결과**를 토대로 한국항공우주산업(주)(이하 'KAI')을 정부지원 항공 MRO 사업자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.

* 민관 전문가 14명으로 구성(대학, 연구원, 민간업체, 회계사, 변호사, 공무원)

** 사업수행능력, 정비수요확보, 투자계획, 사업추진전략, 사업실현가능성, 부지·시설 등 6개 평가분야에서 우수 판정

- 평가위원회는 KAI가 항공기 제조사로서 MRO를 위한 시설, 장비보유 및 해당 지자체의 사업부지 저리임대 등 MRO 사업추진 기반이 충분하고,
 - KAI가 군용기 정비경험과 함께 국적 항공사가 가장 많이 운용하고 있는 B737 항공기의 개조 경험 등도 있어 민·군 항공기 정비업 경영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,
 - 비록 사업부지가 지리적으로 편중된 사천시에 위치해 있으나, 주변에 항공우주산업단지가 있고 항공관련 협력업체도 60여개가 입주해 있어 MRO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입지조건도 우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.

* 독일 루프트한자테크닉, 미국 AAR, 일본 ANAM 등 선진국의 MRO 전문기업도 관련 협력업체가 입주해 있는 지방도시(함부르크, 오클라호마, 오키나와)에 MRO단지 조성

- 또한 정부지원 이외에 투자금융사 등 다양한 출자기관* 확보와 함께, 국내 LCC 물량 및 국내외 군용기 정비물량** 수주 등을 통해 '26년부터 순이익이 발생하는 등 사업성도 있다고 판단하였다.

* (국내) 하나금융투자·현대위아·제주항공·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등 4개사
(해외) 美 AAR, Unical 등 2개사

** (한국) P-3C, T-50, KT-1, K-UH, F-5 등, (미국) F-16, F-15 등

- 국토교통부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적 항공기 정비의 내수전환*과 국내 항공 MRO 산업육성을 위해 3단계 추진전략을 마련('15.1월)하고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.

* '16년 기준, 국내 정비수요(1.9조원)의 48.6%(0.94조원)가 해외정비(별첨 참조)

** MRO 자립기반 확충(1단계) → 전략산업화(2단계) → 해외시장 진출(3단계)

- 그간 국내 MRO 투자확대를 위한 외국인 지분참여 제한폐지('16.3월 항공사업법 개정), LCC 안전확보를 위한 정비격납고 신축(인천공항, '16.12, (주)STK), 엔진부품 수리기술 개발('17.6, 대한항공) 등 1단계를 완료하고,
- 정부지원 전문 MRO사업자 선정 등 2단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, 금번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정부지원 사업자로 KAI를 선정하게 되었다.

- KAI가 계획대로 '18년 항공 MRO 전문기업 설립 시 '26년까지 2만여명의 일자리* 창출은 물론, 수입대체 1조68백억원, 생산유발 5조4천억원 등 경제적 효과도 발생된다.

* KAI 직·간접고용 5,600여명, 관련 협력업체(기계·판금 등 임가공업, 부품제조업, 탄소복합재 제조·수리업 등) 14,000여명

- 아울러 항공기 정비의 국내 전환으로 항공업계가 절감할 수 있는 기회비용*도 연간 약 440억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,

* 해외정비 1회당 발생하는 손실비용 : 약 2.86억원(매출손실, 연료비, 인건비 등)

- 항공기·엔진·부품 등 정비체계 구축을 통한 부품제조업 등 항공기 제작산업과의 동반 성장도 유도할 수 있는 등 유무형의 경제적 창출효과도 기대되고 있다.
- 특히 KAI를 중심으로 MRO 클러스터가 조성될 경우 진주·사천 등 경남 서남부지역이 미국 오클라호마나 싱가포르* 등과 같은 MRO 산업 중심지로 성장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촉매제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.

* (오클라호마) 민/군 MRO단지 조성, 500여개의 MRO·부품업체 등 밀집
(싱가폴) 창이공항에 항공우주산업단지 조성, 100여개의 MRO·부품업체 등 입주

- 향후 KAI는 한국공항공사, 참여업체 등과 함께 MRO 전문기업을 설립 (18.3월)하고, 정비인력채용 등 사업 준비를 완료(18.10월)한 후 국토교통부로부터 정비조직인증(18.11월)을 받아 사업을 착수(18.12월)할 계획이며,
 - 2019년까지 미국(연방항공청) 등 해외항공당국의 정비능력인증도 받아 해외물량을 수주하는 등 국제경쟁력도 조기에 갖출 방침이다.
- 前 인하대총장 박춘배 교수는 “금번 MRO 사업자 선정은 정부, 기업, 지자체의 노력으로 이뤄낸 고무적인 성과로 그간 대형항공사 중심의 자가 정비체제에 머물렀던 국내 MRO 산업이 전문 MRO 기업 중심의 글로벌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가 크고, 우리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”이라고 평가하였다.



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박주환 사무관(☎ 044-201-422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